

[書評]

金安濟著, 環境과 國土: 理論과 政策,

서울: 博英社, 1979, 642面.

權 泰 竣\*

우리의 同僚 金安濟 教授가 지난 數年間に 걸친 研究業績을 「環境과 國土」라는 한 卷의 冊으로 出刊하였다. 600餘 「페이지」가 넘는 大作이다. 「環境」이라는 包括的이고도 多樣한 意味를 內包하는 概念을 定義하려는 試圖에서부터 始作하여, 資源의 開發과 保全의 問題, 産業과 聚落立地의 理論과 國土開發政策上的 課題, 都市의 成長過程에 關한 理論의 紹介 및 지난 20餘年間 韓國에 있어서 計劃 또는 實踐된 여러 開發戰略의 分析·評價, 農村의 地域 社會開發의 問題, 住宅市場의 經濟學的 分析和 政策方向, 그리고 地域開發行財政 體制에 이르기까지, 國土空間上의 人口의 聚落과 經濟活動에 關聯된 거의 모든 現象을 對象으로 한 力作이다.

國土開發, 都市計劃, 自然環境·資源의 保全과 管理 등에 關한 學術的 著述을 해보려고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우선 무엇보다, 研究對象을 과연 어떻게 定義하는 것이 學術的으로 有意하고 同時에 現實的으로 適切한가 하는 問題에 逢着해서 苦心하게 된다. 「環境과 國土」의 著者인 金安濟 教授는 가장 包括的인 對象範疇을 設定하므로써, 이 問題를 解消시키고 있다. 지난 數年間の 여러 分野에 걸친 著者의 研究業績을 集大成해서 公刊하기 爲한 必要에서 뿐만 아니라, 讀者들로 하여금 이 分野의 많은 問題들을 서로 關聯지어서 鳥瞰할 수 있게 했다는 點에서 뜻 있는 試圖였다고 할 수 있다.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 環境管理 및 設計 등의 技術을 研究·開發하고 그 過程을 研究하는 사람들이 當面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는, 그 研究가 不可避하게 學際間 또는 綜合科學的인 方法論에 依據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國土空間안에 있는 저 數많은 雜多한 自然 및 人間現象을 觀察하고 分析하는 데에도 여러 專攻分野의 理論과 研究方法를 援用해야 하고, 나아가서 問題에 對한 實踐可能한 處方과 解決策을 開發하기 爲해서도 여러 專門分野의 技法과 理論의 理解와 活用이 必要하다. 이런 綜合科學的인 方法으로, 環境과 國土를 하나의 體系的인 現象으로 把握하고 分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改善策을 研究해 낼 것을, 한 學者에게 要求하는 것은 無理한 注文이다. 이런 뜻에서,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教授

金安濟 教授의 이번 勞作도 「環境」 또는 「國土」라는 對象을 하나의 理論的 틀에 넣어서 說明하려고 試圖한 學問理論定立努力이라기 보다는, 지난 20餘年間 우리社會에서 主로 舉論된 問題들의 敘述 乃至 그 分析을 爲主로 하는 研究業績들의 集大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의 그 對象範圍의 包括性은 可히 野心的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分野의 後進學徒들을 爲한 아주 쓸모있는 參考書가 될만 하다.